

사찰 불법갈. 이세 무민화이 함께아겠습니다. 종교장래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민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기 1동 223-65호 동명빌딩 3층. 전화 021447-8847-8 팩스 021447-7071 www.muamin21.com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1737-0695 / 팩스 : 021737-0696



사방을 휘감은 철조망들. 터널 건설을 반대한다는 걸개그림을 매단 10m짜리 목조 망루. '자연을 죽이면 인간도 죽는다'라는 붉은 글씨의 현수막들. 반쪽이 베어져 나가, 벌겋게 토사를 드러낸 산허리가 쓰러질 듯 위태롭다.

포장인 안 되었을 뿐 길이 한이 풀린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원각사계곡.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인적이 드문 북한산 입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북한산을 지키려고 철마선원(선원장 수경스님)이 버티고 있다.

철마선원은 산원파악이 되어야 안으로 사찰 내로 들어올 수 있다. 북한산을 파헤치고 굴을 뚫겠다는 개발 마구니들이 철마선원을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8개월째 북한산 살리기 정진기도를 하며 이를 막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오후 7시. 평소보다 훨씬 늘어난 60여 명의 사람들이 철마선원을 수호하고 있다. 이날 아침 600여명의 운영강사가 채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항수단이 없는 스님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2개 중대가 파견돼 있는 모습은 사태의 위급함을 절로 느끼게 한다.

수행환경 딱딱 위기 직면

이처럼 북한산 관동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1년 11월 15일. 건설시공사가 대대적인 나무벌채에 들어가면서부터다. 불교계는 이때부터 간이법당을 세우고 현각농성을 하며 온몸으로 도로공사를 저지했다.

공사영향권 내에 있는 북한산 소재 30여 개 사찰들이 소음과 먼지 피해, 지하수막 단절, 건물 파손, 산도 통행 불편 등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 파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주요한 피해를 살펴보면 진동 피해(송추 원각사, 지하수막 변화(화통사, 소음과 비산먼지(덕천사, 흥법사, 원각사, 천인사, 보현사, 대원사, 약수선원, 경내지 수용(흥법사, 천인사, 보현사 등)이다. 한번의 혐의도 있어 이런 대규모 공사가 추진됐다는 사실에 불교계는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예산 2조 3천억 3천34억 원(국고 9천6백68억 원, 민자 1조 4천16억 원)으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서 남양주 별내면 화거리까지 34.9km(국립공원 통과길이 4.6km, 터널 4.1km,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며, 현재 구리-하남-안양-부천-일산까지 놓여있다. 이 도로를 뚫기 위해 LG건설 등 9개 건설사들은 98년 서울고속도로(주)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 공사가 완공될 경우 북한산 자연환경은 크게 손상되고, 따라서 수많은 동식물이 사라질 것은 자명한 이치다. 동식물의 죽음은 곧 인간의 죽음이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북한산이 훼손될 경우 서울은 사람이 살기 힘든 사막 도시가 될지 모른다. 또한 북한산에 깃들여 천년 동안 지속되던 30여 전통사찰도 스님들이 떠나버려 폐사장이 될 것이다.

불교계 원경수호 강민 의지

불교계와 건설업체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월 18일. LG건설 직원에 의한 비구니스님 폭행 사

“자연을 죽이면 인간도...”

북한산 뒤덮은 분노의 함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관동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세운 교각이 경기도 양주군 송추 부근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 사이로 관동도로가 예정돼 있는 사패산이 보인다.

건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성난 불심은 '자연환경을 수호하라'는 조계종 원로회의의 유시로 표출됐고,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달아 개최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환경시위인 '자연보존과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대회'가 3월 5일 조계사를 달구었다. 3월 31일 북한산 살리기 나무심기 행사, 4월 9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주지들의

송추 방문 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월드컵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난 후 북한산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감돌기 시작했다. LG건설과 건설교통부가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 재개의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하루 8억원씩 손해가 난다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안 불교계는 6월 26일 조계사에서 다시 한번 범불교대회를 개최해 공사중지와 대안노선 검토위 구성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 2일 청와대에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를 연일까지 연거늘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 천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 서울광역시신도회, 포교사단 등도 6월 26일부터 '북한산 살리기 환경수호단'을 결성해 철마선원을 지키고 있다. 17일부터는 전국강원연합회 회원들이 모여 교대로 상경해 철마선원을 의호하고 있다.

“대안노선 검토에 우회해야”

서울지방법원은 16일 회동사등 19개 사찰이 제기한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 중지 가져분'에 대해 '일부 구간 공사중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불교계는 사찰 수행환경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관동노선이 지나가는 주요 구간인 회룡사와 흥법사에 대한 공사가 금지됐기 때문에 현 공사는 불가능하다"며 "대안노선 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노선검토위를 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지키고 있는 경찰들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16일 여의도 LG본사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의 중지를 촉구했다.”

성해 피적의 노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철마선원장 수경스님은 "이번 판결은 합법적으로 설계했다는 북한산 관동도로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불교계와 환경운동 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각판결을 내린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 재개를 놓고 불교계와 건설업체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북한산 관동구간 7.8km 중 240m에 대한 공사안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서울고속도로 이영선 영업팀 부장은 18일 "우회 도로를 건설할 경우 9천5백여억원의 정부재정지원

회에서 "도로 건설은 차량증가를 부채질할 뿐 큰원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산이 결국 훼손된다면 또다른 국립공원의 훼손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불교계가 북한산 살리기 실패를 기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원되기 어렵기에 불교계는 모든 세대의 소중한 근원인 북한산을 잘 보존해 후대에 전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글=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a.com 사진=고명태 기자 ygo@buddha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 온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원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정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모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